



‘록의 전설’ 신중현 헌정앨범 발매

“블랙리스트는 불행한 일”

박정희 찬양가 요구 거절 후 줄줄히 금지곡 ... ‘아름다운 강산’ 배경 밝혀

‘신중현 디 오리진’ 정원영·이이언 등 참여 ... “후배들 음악성에 감탄했죠”

“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긴 건 참 불행한 일이지.”

‘록의 전설’ 신중현(79·사진)은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히트곡들이 금지되는 탄압을 겪은 대표적인 뮤지션이다. 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정동 CJ아지트광충장에서 열린 ‘튠업’ 헌정앨범 ‘신중현 디 오리진’(THE ORIGIN) 발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당시 불거진 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행사는 CJ문화재단 대중음악 지원 프로그램인 튠업의 젊은 뮤지션들이 신중현에게 1974년 밴드 ‘신중현과 엽전들’ 1집을 재해석한 앨범을 헌정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전 헌정앨범의 스페셜 트랙으로 담긴 ‘아름다운 강산’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다.

이 곡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불러 신중현의 장남인 신대철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곡이다. 신대철은 “박정희 찬양가를 만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아버지 작품들이 줄줄이 금지곡이 됐다”며 고심하던 아버지가 신중현과 엽전들 2집에 ‘아름다운 강산’을 수록했다고 배경을 소개한 바 있다.

신중현은 “지금 한국이 정체가 잘못돼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후배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바람직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정 앨범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젊은이들

의 음악성이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후배들이 노래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각자의 음악성을 펼쳤다”고 칭찬했다.

‘신중현 디 오리진’에는 정원영과 이이언이 각각 총괄 디렉터와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ABTB가 ‘생각해’, 아시안체어샷이 ‘그 누가 있었나봐’, 블루파프리카가 ‘긴긴 밤’, 박소유가 ‘설레임’ 등을 각자의 색깔로 수록했다.

정원영은 “신중현과 엽전들 1집은 명곡의 집합체다. 신중현의 명반이면서 가요사를 통틀어서도 명반 중의 하나”라고 이 앨범을 리메이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신중현과 엽전들 1집은 전통 음악의 5음계를 사용한 한국적인 멜로디에 서양의 하드록을 접목해 한국적인 록의 원형으로 불린다. 신중현은 “한국적인 록을 보여주고자 아심을 품고 만들었던 앨범”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록 붐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록은 하나의 음악 흐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화 교류를 하는 발판 역할을 했죠.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기 나라 문화를 엮어서 교류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국적인 흥이나 정서를 록에 엮어서 우리의 잠재된 음악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취지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곡이 완전히 변모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서 역시 좋은 후배들이 있구나, 너무 좋았다”며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도졌을 것”이라고 웃었다.

타이틀곡 ‘미인’은 여러 가수가 함께 연주하고 불렀다. 역동적인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해 3명의 드러머, 6명의 기타리스트, 모든 보컬의 합창으로 구성해 웅장한 사운드를 구현했다. 이 곡에는 튠업 구성원 외에도 신대철, 장기하, 크라이넛의 박윤식 등이 참여했다.

CJ사회공헌추진단의 이상준 사무국장은 2011년부터 교류하는 미국 버클리음대로부터 지난해 신중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의미를 더하고자 헌정앨범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하는 실력과 인디 뮤지션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하고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버클리음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신중현은 “내 음악만 열심히 했는데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지 상상도 못 했다”며 “(학위수여식에) 세계적인 음악인들과 같이 앉아 있다는 게 내로선 꿈과 같은 일이었다.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정도로 영광이고 좋은 결실이었다. 오늘 이 자리도 내겐 과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60년간 에너지를 갖고 음악 하는 원천에 대해 “난 아는 게 음악밖에 없다 보니 음악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음악으로 인생을 보낸 건 내 운명이다. 하늘이 준 천직인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신중현 디 오리진’에 수록된 11곡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31일 3곡이 파트1, 6월 7일 3곡이 파트2로 음원사이트에 공개된 뒤 6월14일 앨범이 출시된다. 6월 24일에는 CJ아지트광충장에서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이 열린다. /연합뉴스

죽은 줄 알았던 톱스타 돌아왔다면?

차태현 주연 KBS 2TV ‘최고의 한방’ 내달 2일 첫 방영

최진혁이 터널을 통과해 과거로 돌아가지마자(OCN 터널), 윤시윤이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 최진혁은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었고, 윤시윤은 24년의 시간을 점프했다.

KBS 2TV가 다음달 2일 밤 11시 첫선을 보이는 금토 드라마 ‘최고의 한방’은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톱스타가 난데없이 그모습 그대로 24년 만에 살아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KBS는 코믹 터치 ‘예능 드라마’라고 소개하는데, 여기도 ‘타임슬립’(시간이동)의 공명연출도 맡았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연출진의 ‘명성’ 덕에 초반 홍보에는 성공했다. KBS 2TV ‘1박2일’ 시즌3의 인기를 이끈 지난해 KBS를 퇴사한 유희진 PD가 도전하는 첫 드라마고, 톱스타 차태현이 주연과 함께 공동연출도 맡았다.

유 PD와 ‘1박2일’을 함께 했던 윤시윤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오는 왕년의 톱스타를 맡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인기를 모은 아역 출신 이세영이 여 주인공을 맡았다.

‘최고의 한방’은 또한 31일 시작하는 수목극 ‘7일의 왕비’와 함께 KBS가 설립한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의 창립작이자, ‘개그콘서트’의 전성기를 이끈 서수민 PD가 ‘프로듀사’에 이어 총괄 지휘를 맡은 두번째 ‘예능 드라마’라는 점에서 방

송가가 주목하는 작품이다.

서수민 PD는 2015년 한류스타 김수현이 주연을 맡고 차태현과 공효진, 아이유 등이 출연한 ‘프로듀사’를 히트시켜 KBS의 ‘예능 드라마’ 시대를 열었다. 예능 PD 출신들이 만든다는 점에서 ‘프로듀사’나 ‘최고의 한방’은 KBS 드라마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작된다.

‘20대 청춘 소란극’을 표방하는 ‘최고의 한방’은 가요계를 무대로 한다. 윤시윤과 홍경민이 1990년대 인기를 끈 듀오 ‘제이투’의 멤버 ‘유현재’와 ‘박현재’를 연기한다.

드라마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유현재(윤시윤 분)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뒤 2017년 현재에 과거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그사이 박현재(홍경민)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스타펀치’의 대표가 됐다. 김민재는 유현재의 아들 ‘이지훈’, 윤순하는 유현재의 연인이자 이지훈의 어머니 ‘홍보희’를 연기한다.

‘프로듀사’에서 KBS 예능국 PD로 분했던 차태현은 이번에는 연예기획사 월드기획 대표 ‘이광재’를 연기한다. 이광재는 홍보희의 아들 이지훈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24년째 홍보희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짝사랑한다. 이세영은 이지훈과 과거에서 온 그의 아빠 유현재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최우승을 연기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2부	25 닥터 365 30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파수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칼럼 우리 시는 세상 (재) 55 감성톤 고맙습니다 (재)	00 속보이는TV 인사이드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추리의 여왕 (재)	00 MBC 정오뉴스 20 군주 한 번에 돌아보기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포조립 55 테마스페셜
1	00 4차산업혁명기획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중 50 한국인의 발상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00 리얼스토리 논 25 구리가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2	40 행복한 지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00 리얼스토리 논 25 구리가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황금주머니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55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16강전	00 MBC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6시 내고향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15 KBC 저녁뉴스 25 수성한 파트너 (재)
6	30 지상파 UHD 개국 공동 축하쇼 UHave a Dream		25 지상파 UHD 개국 공동 축하쇼 UHave a Dream	25 지상파 UHD 개국 공동 축하쇼 UHave a Dream
7	50 UHD 개국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2TV 생생정보 50 이름 없는 여자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2016 KBS 경영평가 결과 05 UHD 개국특집 2부작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의 타임캡슐	00 7일의 왕비	00 군주	00 수성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다큐 2부작 우주극장	10 추적 60분	10 10주년 특집 라디오스타 1~2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UHD 개국특집 드라마 프로듀사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아시아의 조건 멘타와외 성인식)	09:40 글로벌 애매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배추소박이빔과 오이무침)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꼬마버스 타요(1)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체널 e
07:45 출동! 슈퍼웬스	12:45 EBS초대석(재)
08:00 댕댕댕 유치원 1~2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알파벳과 문명)
08:30 똑딱맨(재)	14:30 최강전사, PD나특공대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5:00 그림을 그려요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개러디(재)	
15:05 두키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 - 동반 카르스트를 향하여>
15:20 마사와 공	21:30 한국기행 <이성환 나라의 프랭크>
15:35 모피와 친구들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대학 입시의 진실 -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
15:45 레전드하이어 삼국전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7:30 로보가 폴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7:45 똑딱맨(재)
16:45 댕댕댕 유치원 1~2(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7:30 로보가 폴리	19:30 EBS 뉴스
17:45 똑딱맨(재)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1일(음 5월 6일 戊午)
子	48년생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니 서둘러 이행해야겠다. 60년생 알뜰한 발상이 운택한 생활로 이롭게 됨을 명심하라. 72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84년생 노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26	42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임정이 일관되어야 한다. 54년생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다. 66년생 지나간 일은 무의미하다. 78년생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90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08, 12
丑	49년생 이채로운 감상을 띠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61년생 굳게 닫았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73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만이 남무하고 있다. 85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53, 18	43년생 점점 소멸되어가는 판국을 필 것이다. 55년생 편차가 심하리라. 67년생 실효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일러. 79년생 본바탕의 한계 때문에 회의를 느낄 수다. 91년생 너그러운 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5, 83
寅	50년생 서로 맞지 않다면 오히려 폐해를 입게 된다. 62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74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86년생 한 번 실수는 병기지상사이다. 행운의 숫자 : 43, 10	44년생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56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68년생 함께 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지겠다. 80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 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0, 48
卯	51년생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다. 63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75년생 초심을 뒤론한 만한 강력한 유혹 앞에 노출되리라. 87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량이다. 행운의 숫자 : 87, 58	45년생 흐름이 유연하여 쉽게 이루어지겠다. 57년생 관행에 얽매어 남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69년생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폭발적인 동력을 띤다. 81년생 심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6, 33
辰	52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64년생 결코 간단한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는 판국이다. 76년생 반복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88년생 하자가 보이므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81, 19	46년생 시종일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58년생 연잎은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법이다. 70년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리라. 82년생 양쪽 편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2, 18
巳	53년생 새움지마오, 전화위복의 이치로다. 65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리라. 77년생 결과 속이 짝 찬 모습이니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89년생 뒤달은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2, 28	47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59년생 징후가 보일 때 즉시 손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71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83년생 간절히 희망한다면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82